



# Global Goings-on

## 영국

### ■ 대형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의약품들을 끌어 안기 시작하다

#### 평생 친구

대형 제약회사들이 한 때 적이었던 제네릭 의약품(특히로 보호받는 기간이 지나 화학공식에 따라 누구나 제조할 수 있게 된 약품) 제조사들을 끌어 안는 법을 배우고 있다

최근 한 저녁 식사자리에서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졌다. “파란 약과 빨간 약이 있는데 파란 약이 빨간 약에 비해 가격은 절반이고 그 효능은 똑같다면 절반 가격의 그 파란 약을 사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바락 오바마는 대형 제약회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찾도록 몰고 있는 두 가지 거센 세계적 경향 중 한 가지를 언급했던 것이다.

약값을 내리는데 골몰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은 값싼 제네릭 의약품들의 제조를 권장할 뿐 아니라 값 비싼 특허의약품들의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과 EU의 당국자들은 각각 반경쟁적 관행을 무너뜨리려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형 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들에게 특허 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제조를 늦추는데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는 이른바 “제조 연기 지불”(pay-for-delay)이라는 관행도 포함된다. 일본으로부터 독일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 제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철폐하면서 약품 시장을 자유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로부터의 압박과 함께 제네릭 약품 제조사들로부터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엄청난 수의 약품 특허가 향후 몇 년 안에 만료되며 이는 제네릭 의약품 회사들로부터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며 가격의 폭락을 의미한다. 컨설팅 회사인 Evaluate Pharma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판매될 3천8백3십억 달러 상당의 특허 의약품들의 특허가 향후 5년 내에 만료될 것이다. 2010년 한 해에만 특허약품으로부터 얻

는 수입의 거의 15%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비 브랜드 제네릭 의약품으로부터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 같은 경우, 특허가 만료되는 그 해 그 의약품의 가격은 85% 이상 떨어진다.

이와 같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형 제약회사들의 전략은 첫째,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들을 브랜드 제네릭 의약품으로 계속 생산하여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충성심을 이용한 가격 프리미엄을 통해 일반 제네릭 의약품들보다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다. 둘째, 아예 제네릭 제조사들을 사 버림으로써 브랜드 제네릭 의약품 제조를 수월하게 하고 신흥 시장으로의 확장을 가속화 한다. 또 다른 컨설팅 회사인 IMS Health에 따르면 올해 현재 가장 큰 의약품 신흥 시장 일곱 군데의 판매 성장이 전체 시장 판매 성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서양 제약 회사들이 이 신흥 시장들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약값을 낮추려 할 것이다. 하지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Charles-Andre Brouwers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이 이를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 여전히 세계의 많은 소비자들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 약값을 지불하고 있고 이 소비자들은 브랜드 충성심이 높거나 혹은 다른 제네릭 약으로 옮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산업의 비밀은 빨간 약을 먹는 환자들은 파란 약으로 바꿔 먹는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The Economist (Aug 6th 2009/ New York)  
 <원문 링크: <http://www.economist.com/>

[businessfinance/displaystory.cfm?story\\_id=14177559](http://businessfinance/displaystory.cfm?story_id=14177559)

## 일본

### 일본 나가노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로 인한 다섯 번째 사망자 발생

나가노(교도)/ 나가노 정부는 지난 목요일 돼지인플루엔자에 감염된 30대 남성이 호흡기와 관련된 문제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일본 내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다섯에 이르게 되었다.

심장 비대, 만성 심장마비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던 이 남성은 지난 5월 일본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최초로 확인된 이래 사망한 사람 중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일본 보건노동복지성(the Health, Labor and Welfare Ministry)은 말했다.

이 남성은 8월 20일 최초로 기침을 하기 시작해 그 주 일요일 체온이 37.9도로 상승한 뒤 지역 병원을 찾았다. 당시 그는 돼지 인플루엔자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이 남성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화요일 만성심장마비와 폐렴으로 입원했다.

다음날 그는 신종 인플루엔자A(H1N1)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 되었고 사망 시 호흡기를 단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The Japan Times (Aug28, 2009)  
 <원문링크: <http://search.japantimes.co.jp/cgi-bin/nn20090828b3.html>>

## 중국

###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용 부담, 갈수록 증가

최근의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의료비용 중에서 비만환자들의 치료에 드는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매릴랜드 락스빌의 보건연구소(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선임 조사 통계학자인 Marie N. Stagnitti씨의 분석에 따르면 비만한 성인들에 대한 의료비용은 2001년 천 6백 7십억 달러에서 2006년 3천 3십억 달러로 약 82%의 두드러진 증가를 보였다.

정상 체중의 사람들에게 대한 비용은 2천 8십억 달러에서 2천6백억 달러로 25% 증가한 반면,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대한 비용은 2천2십억 달러에서 2천 7백 5십억 달러로 36% 증가했다.

비만한 사람들은 2001년 총 의료비 지출 중 28%를 차지했으나 2006년에는 35%로 증가했고 반면 정상 체중인 사람들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30%로 감소했다.

이 기간 미국 내 비만한 성인들의 수는 4천 8백만에서 5천 9백만으로 증가한 반면 정상 체중의 성인 수는 7천9백6십만에서 7천8백3십만으로 다소 감소했다.

본 결과는 미국 가구들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해 각 가구의 의료비를 조사한 의료비패널 조사를 통해 얻은 것으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모든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기간 중 미국 인구 내 과체중인 사람들과 비만한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는 의료비 증가를 일부 설명해 준다. 2001년 미국 성인 중 23.6%가 비만, 39%가 정상 체중이었으나 2006년 비만은 27.2%로 증가, 정상체중은 36.1%로 감소했다.

Stagnitti씨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심장병이나 당뇨병과 같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비만한 사람들이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1년에는 57.1%가 비만이었으며 2006년에는 59.7%가 비만이였다.

연합 Aug 20, 2009  
 <원문링크: [http://www.chinadaily.com.cn/life/2009-08/20/content\\_8595215.htm](http://www.chinadaily.com.cn/life/2009-08/20/content_8595215.htm)>